

「한국관광학회 고문 회고록」:
학회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安 鍾 允
제 6~7대 회장
Ahn, Jong-Yun

I. 학회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1. 제 6대 회장(1982. 1. 14 ~ 1984. 2. 18) 시절 회고담

1982년 1월 14일 여의도 교원공제회의실에서 열린 '82년도 한국관광학회 총회시
에 필자는 제6대 한국관광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학회발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학이불염(學而不厭) 회인불권(誨人不倦), 다시 말해서 배
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논어에서의 이야기
였다. 왜냐하면 학회 회원 구성원의 대부분이 학계 교수로서 연구와 교육의 일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생각을 낳게 하는 점은 요즘에 와서 우리
는 과학세계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과 생활세계에서 살면서 알 수 있는 것의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고도 한다. 연구에서는 우리의 관광분야만큼
그 학제적 연구가 강하게 요청되는 분야도 드물다고 하겠으며, 우리의 관광학회 구
성원에 있어 그 학제적 연구를 위한 태세를 갖춘 곳도 드물다고 자부하고 싶었다.
그래서 학회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의 과제로서 학제적 연구의 진면목을 밝힌
바 있었다.

생각건대 學際的 研究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제를 각기 다른 전문분야의 시점
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도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고 중심점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관광에 관한 학제적 연구 역시 마찬
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공동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관광과 관광
사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진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와 같은 우리의 공동목
표를 구체화 하고 그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학'도 존재하는 의의가 있

다고 하겠다. 본 학회의 당면과제인 분과별 연구도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

취임인사에서 업무의 사업계획으로 회원에게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첫째, 한국 관광학의 패러다임 정립, 둘째, 학제적 연구의 확대, 셋째, 관광학연구의 국제화, 넷째, 관광학술지 제호 ‘관광학’을 ‘관광학연구’로 수정, 다섯째, 회원 상호간에 학문적, 인간적 유대를 강화한다”는 발표이었다.

1982년도에 관광연구개발의 길목에서 한국관광학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래 미력이나마 학회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공헌해 보고자 노력해 왔다. 관광학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학회의 결성 이래 매년 연례행사로 2회 국내학회 학술대회를 원칙적으로 당연히 개최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일은, 학회의 연구 및 활동 무대를 국외로 확대시켜 활동영역을 아시아로 넓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유럽과 미국쪽으로 확장하는 일이 필자의 숙원이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는 형편이 좋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관광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비록 경제적 수치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의식수준, 관광의욕 수치가 높아짐에 의해서도 관광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물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아니 늘어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만 하겠다. 그러한 미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맞이하여 선진관광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관광가치의 창조와 진화를 위해 연구개발 하는 일이 우리들 “관광전문인” 또는 학회가 해야 할 일로 생각되었다.

1983년도에 들어와서 量보다 질을 중시하여 한국정부는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및 관광객 유치효과 증대를 위한 각종 관광객이용 기본시설 정비에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듯 1983년도의 국민 국내관광객은 사회의 안정 및 소득의 증대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982년의 113,132천명에 비하여 4% 증가한 117,713천명으로 기록을 남겼다. 한편, 자율화 추세와 국제화시대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83. 1. 1부터 관광목적의 국외여행이 제한적이거나 처음으로 허용되어 1983년 중 2,443명이 국외관광여행을 하였다. 어려운 관광여건과 세계적으로 저조한 관광추세에도 불구하고 '83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외화획득에 있어 전년 대비 각각 4.3%와 18.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83년도의 세계의 국제관광량은 세계관광기관(WTO)의 추계에 의하면 여행자수는 2억 9,387만명, 여행수입은 96,219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관광분야 연구교류회의를 가진 것은 1982년초 부터이다¹⁾. 일본관광학회를 대표하여 마에다(前田) 교수가 한국관광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필자를 방

1) '83'84년 2차에 걸친 한일 관광학회 공동연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다.

문하고 한일 관광학회간의 학술교류회 개최에 관해 협의를 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2년 봄인 것이다. 한편,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해 사회가 안정되고, 외국인 방문객 수용을 중심으로 한 단계에서, 국민의 국외여행 자유화가 제한적이나마 개시됨으로써 국민의 국내관광 진흥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시기였다.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제1회 한일 관광학회 공동연구회는 제14차 한국관광학회 개최와 더불어 '관광학회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하에 여러 주요문제를 가지고 1983년 8월 27일~28일에 양일간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한일 관광학회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던 1983년도는 한국관광학회에서 관광학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의 한해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 대학의 학회가 국제학회 개최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에서도 국제학회 개최의 경험이 없었고 관광학 분야에서 학문분야의 국제화를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한양대에서 학회 개최 예산경비 지원을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대의 협조를 해 주었었다. 아직도 그 당시의 관광학회 국제화를 위한 크나큰 배려에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제2회 한일 관광학회 공동연구회는 '84년 1월 22일에 일본의 입교대학(立教大學)에서 '한일 관광왕래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연구회의 공동테마는 '관광연구의 현황과 과제'였으며, 한일 연구자가 상대방에게 자국의 관광연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또한 이 84년도는 1988년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해이기도 하여, 동경올림픽 후의 일본관광에 관한 보고도 기대되었다. 입교대학에서 개최된 제2회 연구회에서는 그 당시 제2단계 개발이 종료된 한국·경주의 관광개발을 공동 과제로 삼아, 일본의 연구자도 현지 조사를 사전에 실시한 후 토의하는 섹션을 준비한 적도 있어, 전문성이 높은 학술교류가 부분적이기는 하나 실시되었다는 점이 기억에 남아 있다. 1984년 1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제2회 한일 관광학회 공동연구회가 있었던 이 기회에 우리의 많은 학회 회원(약 43명)이 참가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음은 물론 공동연구회의에 참가한 학술연구의 성과를 거둔 사실 외에 많은 회원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학술연구 겸 관광여행이 생활세계의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상호 우애와 친목을 드높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길이 추억되어야 할 일로 생각된다. 특히 이 학술연구 겸 사전관광여행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84년도에는 여행자유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외여행은 어려운 시기에 전례가 없었던 국제학술회의라는 명분 때문에 출국 및 입국허가가 가능했었다. 참가회원 전체는 일부 부부동반도 포함되었지만 전회원이 처음으로 국외여행을 떠나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관광학 교수이기 때문에 여행의 일정 프로그램도 가장 가치있는 관광코스 내용으로 작성되어 교통수단을 다양하게 하여 전국에서 모든 회원이 부산까지 철도여행으로 저녁에 도착하였다. 늦은 밤에 부관페리 연락선의 배를 타고 부산을 떠나 야간바다 여행 끝에 아침에 일본 시모노세키(下関)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후쿠오카(福岡)에서의 여행, 후쿠오카 벳부(別府)온천 등 중요한 관광지를 여행한후 오사카(大阪)에서 야경을 구경하고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일본의 고속철도열차 신칸센으로 도쿄(東京)로 떠나 반나절 동안 창밖의 관광을 하면서 도쿄역에 도착하였다. 입교(立教)대학 마에다 이사무(前田勇) 교수가 이미 도쿄역에 직접 마중을 나와 학교버스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 우리학회 회원을 환영하면서 입교(立教)대학 근처로 숙소를 정해놓고 이동해 주는 환대의 예의를 보여주었다.

'84년 1월에 제2회 한일 관광학회 공동연구회를 마치고 난 그 후 1980년대 중반이 되어 일본에서는 에 제2회 와는 별도로 입교대학 관계 되어중심으로 한 '에 제2 연구회 (Japan Institute of Tourism Research)'가 설치되었다. 새로운 회 한설치하게 된 이유로는 에 에서도 당시 유일하게 관광학 전공의 대학원을 가지고 있던 입교대학 관계 가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발표의 980서, 보다 학술적인 전문성이 높은 학회 조직이 필요하다고 여긴데 있다. 그러나 그 후 에 제2회 와 한국관광학회의 교류가 정지상태가 된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수 없stit국과 에 은 앞으로도 계속 대학을 바꿔가며 공동연구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또다시 복원이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sti 생각한sti 생각 형태가 가 된가지 있을 수 있으나 회 차원에서 한일 관광학회 공동연구회를 복원하고, 공동연구회가 정착되 회한중일 세 나라의 관광연구공동체 조직을 재정립하고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일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st²⁾

2. 제 7대 회장(1984. 2. 19~1986. 2. 19) 시절 회고담

2년간 회장직을 회원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으로 대과없이 마쳤다. 특히 임기 중 이웃 일본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서울('83 제1회 한일 관광학회 공동연구회) 및 도쿄(동경)('84 제2회 한일공동학회 공동연구회)에서 연구회를 가졌음은 큰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는 바이다. 회장 재임시절 나름대로의 수확을 거두었음을 큰 보람으로

2) 현재 매년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개최에 한중일 관광협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산·관·학 협력의 필요성으로 3국의 관광진흥 교류회의에 학계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한번 제안하여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일로 생각한다.

여겼으나 일을 한번 더 열심히 계속 해보라는 회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84년 2월 19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관광학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재선출되어 연임이라는 중책을 떠맡게 되었다. 연임의 이유는 한·일 관광학회 공동연구회를 한·중·일 관광학회 공동연구회로 확대, 개편하는 역할과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에 대비한 학계의 연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과제가 산적되어 있었다.

1984년도 들어와서 연임이 된 제7대 학회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학회의 활동영역을 아시아의 일본에서 구미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쪽으로 확대한 일이었다. 우리 학회가 주로 구미의 관광학자 및 전문가와의 교환을 한 해로서 이하에서 그에 관한 주요 행사의 요지에 관해 기술해 보기로 한다.

(1) '84 스위스 관광실무교육자 초청강연회

첫째, '스위스 관광실무교육자 초청강연회'를 가진바 있다. 그 모임은 '84년 6월 2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스위스 관광호텔 아카데미 디렉터며 관광실무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은바 있는 Director, R.D. Heagle이 '관광이론과 실제에 관한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바 있으며, 동시에 우리측의 윤전용 교수회원이 '80년대 후반을 향한 한국관광산업의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발표를 행한바 있다. Heagle 발표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100년전만 하더라도 스위스는 작은 농업국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Thomas Cook이 관광사업을 일으키면서 관광사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2) '84 한·유럽지역 관광공동연구회

'84 한·유럽지역 관광공동연구회'의 모임을 8월 25일 서울힐튼호텔에서 가졌다. 공동연구회에 있어서의 주제와 발표자는, ① '80년대의 오스트리아 관광의 정책 및 경영과 오스트리아인이 본 한국관광(Dr. Norman Sigle) ② '80년대의 프랑스관광의 정책 및 경영과 프랑스인 본 한국관광(Mr. Jean Hourcarde), ③ '80년대의 이태리 관광의 정책 및 경영과 이태리인이 본 한국관광(Dr. Francesco kanduzzi), ④ '80년대의 스페인 관광의 정책 및 경영과 스페인이 본 한국관광(Mr. Pablo Muller Lasa)이었다. 이상 발표자의 대부분은 자기나라의 관광 및 관광정책에 정통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공관원 등 한국관광의 여러 사정에도 밝은 분들이었음으로 인해 모두에게 귀중하고도 유익한 발표를 해주었다.

(3) '84 국제관광세미나 공동연구회

이 모임은 '84년 9월 14~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졌다. 주최는 한국관광공사

가 되었지만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하여 큰 성과를 거둔 행사였다. 주제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다. ① “Role and Impact of Domestic Tourism to the Country in the '80s(Dr. Edmund W. J. Faison) ② Effective Development of Limited Tourism Resources(Dr. Fred R. Lawson), ③ Strategic Marketing Planning to Increase Korea's share of the international Tourism Market(Dr. Donald E. Hawkins) ④ Importance of Market Research for Tourism Development(Dr Peter D. Weldon) ⑤ Model Building for Korean Domestic Tourism Policy(Mr. Jang Choon Lee)

(4) '84 Jafar Jafari(미국 위스콘신대학) 교수 초청강연회

이 모임은 84년 9월 25일에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콘서트홀에서 가진바 있다. Jafari 교수는 세계에서 최상급의 관광학술전문지인 Annals of Tourism Research의 Editor-in Chief로서 30년 동안 편집위원장 역할을 한, 관광학계에 많이 알려진 학자이다. 발표주제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관광정책결정과정에서 있어서 사회·문화적 가치구조의 이해’의 주제로, 제2부에서는 ‘관광상품과 서비스가 담긴 장바구니(Market Basket)’란 주제로 행해졌다.

'85년도에도 연례행사로서의 2차에 걸친 학술발표회의는 정상으로 열렸다. 그러나 우리 학회의 관심사는 '86 아시안게임은 물론 '88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외래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의 충실과 한국의 이미지를 창조하여 홍보·선전의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 아래와 같은 국제관광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월 25·26일 양일간 '88 서울올림픽을 겨냥한 한국관광의 진흥과 수용태세 개선'을 주제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학회가 함께 추진하는 국제관광학술세미나에서 우리 학회는 아래와 같은 외국인 발표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1) 브렌트 리치(Brent Ritchie) 교수[캐나다 켈커리 대학교 관광학과장]
- (2) 존 헌트(John D. Hunt) 교수[조지워싱턴대학교 관광학과장]
- (3) 자파리(Jafar Jafari)교수[위스콘신대학교 교수 겸 ATR 편집위원장]

한국관광학회 회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은 4년의 재임 중 필자는 미력이나마 학회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남겨보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다. 돌이켜 보니 회장직을 맡고 있는 동안 충분히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실천해 보고자 노력한 것 중의 몇 가지는 관광학의 학제적 연구, 관광학연구의 국제화를 위해서 한국관광학회와 외국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게된 일은 재임 중 회원의 적극적인 협력,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학회 재임 중 활동의 발자취 내용을 적어보니 나의 삶 나의 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며 보람있는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II. 새로운 학회 발전을 위한 제언

우리의 관광학회가 추구해야할 목표중의 하나가 내적 충실을 더해가는 동시에 외국의 '학자'와의 교류를 뛰어넘어 '학회'와의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계속 확충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외국학회와의 교류가 단순한 행사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관광에서 지식 기초의 관광학 토대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대중관광의 해법을 찾아서 한국관광학 발전의 토양이 되며, 관광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토착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제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학회차원에서 공동연구회의 국제화

관광학회 공동연구회의 국제화를 위해 추진하는 단계와 대상국가는 1단계에서 한·중·일 학회 공동연구회에서 출발하여 정착시키고 2단계에서 아세안(ASEAN) 10개 국가로 확대·발전시키는 안이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성공한다면 아세안+한·중·일 13개 국가의 관광학회의 국제화를 이룩할 수 있다. 준비과정은 우리학회 내에 현재는 연구분야 내용 별로 분과학회가 존립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동연구회를 나라별로 이룰데면 한일 관광공동연구회, 한·중 관광공동연구회 등으로 13개 국가의 분과연구회를 두게 하는 안이다.

둘째, 국제화·세계화 과정에서의 한국관광학회 회원의 연구능력 지위향상

한국관광학회의 『관광학연구』 편집위원회의 투고심사 및 평가기준에 관한 통합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학회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학회 회원의 연구수준을 세계속에서 경쟁력이 있도록 높이기 위해서는 전세계에서 관광학연구의 상급수준으로 알려진 논문 학술지의 글로벌 스탠다드 심사기준을 도입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학회에서 발행하는 『관광학연구』지가 국내에서는 최고급 수준의 연구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이미 세계각국의 관광학계 논문연구수준의 등급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 기준으로 볼 때 등재 인정을 받는 저널에 게재된 한국관광학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관광학연구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연구평가의 대상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Annals of Tourism Research와 같이 우수 학술지에 이른바 사실상 세계가 인정하는 등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저널에 한국의 관광연구자의 게재수의 다소에 의하여 한국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법의 하나는 우리 국문으로 집필된 『관광학연구』의 원고 게재 심사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유사하게 맞추어서 연구집필하는 것으로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상급수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 집필을 할 경우 사전 집필경험이 있었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한국 『관광학연구』를 상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다. 국제적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갖고 연구의 가치를 창출하고 진화를 통하여 끊임없는 관광연구개발로 우리학회의 미래가 선진화 한국으로 가는 길에 한구석이나마 주도적 역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